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표준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2월 7일 (토) 제 152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이슬람 신앙 본질 아닌 이데올로기 불과!

이코노미스트, IS 등 이슬람극단주의의 사상적 근간인 “성전주의” 해부

프랑스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은 한마디로, 이슬람권의 개혁,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과 쇠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다. 그러나 파리 시가지에 뿔뿔히 찢어지며 불타오른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서방 세계를 이슬람 극단주의로 변화시키는 개혁주의자로 자처했다.

이번 테러의 주범인 쿠아치 형제를 행동화 한 '성전주의(Jihadism)'은 바로 알라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살상하는 것조차도 용서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개종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칼과 코란"의 전통 개념이 극단화된 것이다.

그러나 성전주의는 이슬람 전통 사상이 아니다. 성전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무대는 바로 1979년 소련의 침공으로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이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에서 소련에 맞서는 토착민들은 '무자헤딘(전사)'으로 거듭났고, 각국의 이슬람주의 청년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찾아 스스로 무자헤딘이 됐다.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조직 알카에다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슬람주의 세력의 영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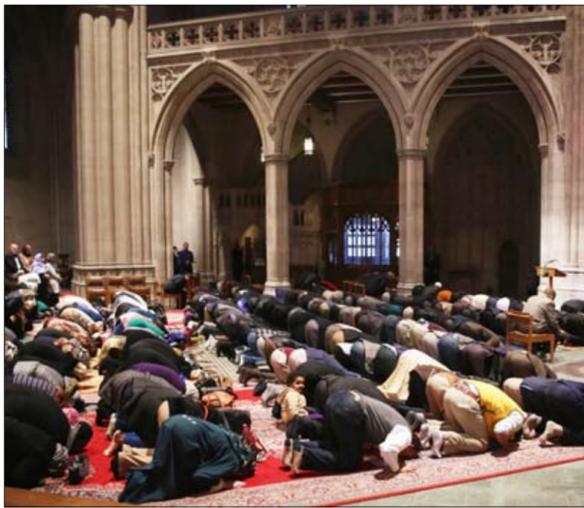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성전주의의 허상은 즉 이슬람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근대사에 있어 서방 세계와의 투쟁 과정을 통해 생성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실상을 보도한다(The roots of jihadism: A struggle that shames, Islamist violence stems much more from recent history than from the faith's essentials).

소련의 철군으로 끝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냉전 구도의 해체로 이어지는 한편 새로운 국제 질서를 예고했다.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각종 테러 활동으로 미국과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부른 걸프전은 이슬람권 내부 분쟁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2001년 9·11테러와 이를 근거로 시작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처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정점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작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전쟁 등은 결과적으로 중동에 더 큰 혼란과 분쟁을 가져왔고, 이는 '이슬람국가'와 같은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의 힘을 더욱 키우는 양분이 됐다. 2010년 중동 곳곳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민

중화 투쟁은 잠시 '아랍의 봄'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다. 그러나 "아랍의 봄"은 이제 '지하디스트의 봄'으로 바뀌고 있다.

'성전주의'는 바로 지하디스트의 기본 골격이다.

십자군 전쟁, 유럽 종교개혁 후의 이슬람권과의 종교 전쟁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슬람교도들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느끼게 된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이슬람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서방 세계의 비호를 받는 독재 정권의 부패와 함께 계속되는 경제적 낙후성은 젊은 무슬림들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 수 있다"는 급진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됐다.



사진은 2014년 11월 미국 국립 대성당에서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

따라서 이슬람 급진 종교 지도자들은 서방을 따라 근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만 종교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확대시켜 상치받고 소외받는 젊은 무슬림들을 끌어 들이게 된다.

시아파(Shia)가 바로 이러한 종교적 왜곡을 바탕으로 1979년 '이란 혁명'을 성공시킨다. 한마디로, 정치적 무슬림들이 근대화된 왕정을 철저하게 압박적인 신정 체제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살라피스트(Salafis)" 즉 모하메드 선지자를 따른 첫 제자들이 '살라프(Salaf)'에서 영감을 받아 정치적인 폭력은 알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는 성전주의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게 된다.

무슬림에서 '배교하면 죽음'이라는 논리까지 가세해 곧바로 1981년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 암살에서부터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무슬림들이 대량 살상됐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알카에다라는 성전주의의 대표 주자를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슬람권에서의 내부 배교자나 반역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국가인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과 서방 세계가 바로 성전주의의 목표가 됐기 때문이다.

9.11테러는 서방 세계에 대한 성전주의자들의 선전포고였다.

(3면으로 계속)

유럽청년들 왜 IS에 가담할까?

뉴스위크, 원인 분석

이슬람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청년들은 단지 아랍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무슬림들의 대거 이민한 유럽에서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연합을 한 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대두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 청년들이 과격화하고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 조직에 가입하는 주요 요인으로 오랫동안 두 가지가 거론돼 왔다. 유럽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제한적인 경제적 이동성이다.

최근 프랑스 샤를리 엡도 잡지사에 젊은 테러범 2명이 난입,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직후 테러 전문가들이 색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고용상황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적 성향이 점차 이슬람주의 단체 모병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슬람주의 단체는 젊은 남녀를 급진주의자로 만들려 애쓴다(Islamic Extremism In Europe: Is High Youth Unemployment To Blame?).

청년 실업률, 경제적 박탈감 아닌 개인적 성향과 소외감 유럽사회 다문화 거부 분위기... 무슬림이민자들 융합 못해



"실상 어떤 정형화된 프로파일은 없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델하우지대 회복탄력성 연구소의 박사후 과정연구원 아만타 트 아마라시엄의 결론이다. 그는 연구를 위해 IS와 자바트 알-누스라 등의 테러 단체 대원들을 인터뷰했다.

"기본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부터 백인 개종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족적 배경, 갖가지 사회경제적 배경이 관련됐다. 결손가정 출신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빈곤은 옛날부터 존재했다. 실업도 옛날부터 있었고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성전을 펼치지 않는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에 있는 퀸즈대 정신의학과 와그디 로자 교수의 말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전제적 이슬람국가 견제, 민주주의 개화도록"



3면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4면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16면 라홍재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중국어판 출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2015년도 총회 강도사고시 응시 공고

2015년 10월에 시행될 '강도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한글과 영어 중 편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 본 총회 직영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 과정 졸업자 혹은 2015년 5월 이전에 졸업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
-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일정기간(1년 이상) 훈련을 받은 자

2. 응시 서류

- 고시신청서
- 이력서
- 신앙고백서
- 당회장 평가표
- 노회장 추천서
- 신학교 졸업장, 성적증명서, 학위기(해당자), 강도사 인허증(해당자)
- 가족사진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 5x7 Size)
※ 총회 웹사이트(www.kosinusa.org)에서 [총회소식]-[총회행정자료]-[재미고신총회서식]

3. 서류 제출

- 모든 응시서류는 2015년 5월 23일(토) 까지 제출하여야 함. (단, 논문, 주제, 서면설교는 9월 30일까지 제출)
- 서류 제출처: 이병조 목사 (Rev. Byoung Jo Lee)
2506 S 86th Ave, Yakima, WA 98903, USA
TEL. (509)833-9037
E-Mail: byounglee123@gmail.com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할 것.
- 등기확인 우편(registered mail)은 받지 않음.

4. 고시료

- 고시료: \$300.00 (예비교육비 포함)

5. 고시 과목

- 강도사고시를 위한 학습훈련: 2015년 6월 중 예정, 장소는 추후 발표
- 필기고시: ①교회사(초대, 중세, 현대) ②조직신학 ③신약성경 ④구약성경 ⑤신약신학 ⑥구약신학 ⑦한국교회사 (이상 7과목)
※ 미국장로교회는 노회에서 실시함
- 논술고시: 논문, 주제, 설교(서면, 실기)
 - 논문
a. 논문제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개혁주의 교회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b. 표지(제목),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도서 순으로 작성
c. 분량: Letter Size, 30Page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d. 참고서적은 10권 이상
e. '논문 작성법'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함
 - 주제
a. 마태복음 7장 15-27절
b. 분량: Letter Size 20Page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c. 분량: Letter Size, 30Page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t.)
d. 참고서적은 10권 이상
e. '논문 작성법'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함
 - 설교
a. 장세기 28장 10-22절
b. 30분 분량의 설교를 원고(Full manuscript)로 제출
c. 동일 본문으로 5분 설교 실기시험

4) 면접고시

- ① 논문과 주제에 대한 질의
- ② 경건생활, 가정생활, 연구생활, 목회윤리, 사회윤리 등에 대한 질의

5) 면접장소: 제31회 총회 장소

※ 한국고신에서 2014년 10월 이전 강도사인허를 받은 자는 위 과목 중 필기고시 면제

6. 고시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3:00 예정
- 장소: 2015년 총회 소집 장소
-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추후에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www.kosinusa.org)를 참고할 것

7. 합격자 발표

- 2015년 총회 시
- 합격자는 총회와 소속 노회에 보고함

8. 기타사항

모든 채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 합격처리되며, 조건부 합격은 없음

9. 고시 문의처

- 총회 고시부 부장 이은성 목사 (Rev. Eun Sung Lee)
16100 SW Farmington Rd, Aloha, OR 97007
Tel: (503)642-3100, (626)374-4337
- 총회 고시부 서기 이병조 목사 (Rev. Byoung Jo Lee)



시론

“문화와 소통하라”



최정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최근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자처한 무장괴한들이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 사무실에 침입해 편집국장들을 포함하여 최소 1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도 창간된 사회주의적 좌파성향의 주간지 샤를리 엡도는 항상 '평등한 기회'를 옹호하는 정치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종교라는 성역을 넘어서 자유자재로 풍자만평을 그려왔는데, 이러한 풍자정신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이며 최고의 선지자로 불리는 무함마드까지 확대되면서 이슬람문화권과 충돌하게 된다. 2006년 샤를리 엡도는 원래 덴마크 일간지 질란드-포스텐이 게재했던 무함마드 풍자만평을 옮겨 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파리의 이슬람사원을 비롯한 프랑스 이슬람단체들은 샤를리 엡도를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된다. 그 후 2011년 샤를리 엡도는 아랍의 봄 기념 특별호 표지에 무함마드의 모습과 함께 '웃다가 죽지 않으면 태형 100대에 처한다'는 내용의 말 풍선으로 구성된 만평으로 또 테러와 방화를 당한다. 이에 질세라 샤를리 엡도는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라는 제목 하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수업을 기른 이슬람 남성과 샤를리 엡도의 만평작가가 키스하는 그림을 표지에 실었다. 이에 전 이슬람 문화권은 다시 공분하게 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테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이번 사태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여파는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132명의 어린이들에게 총구를 겨냥해 비참하게 처형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후로 전 세계는 언론의 자유와 신성한 종교의 권위가 계속적으로 대립하며 충돌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들은 서구권의 언론의 자유를 방자하여 신성한 종교의 권위를 조롱하며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구권은 언론, 출판, 자유, 인권의 영역에는 종교도 예외 없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극단적 대립과 충돌의 상황에서 지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슬람 문화권의 무력을 통한 테러현상은 빈곤에서 온 것이나, 서방의 대 중동정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종교 다원주의를 포함한 서방문명과 신조에 대한 이념적 도전의 행위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세계가 이슬람 테러를 두려워하여 '자유'라는 절대적인 핵심가치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이슬람포비아'(혐오증)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척결할 '종교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분노하는 서방세계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러한 월스트리트의 분석과 대안은 철저한 정치공학적인 제안이기에, 대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슬람 지하디스트의 테러를 더욱 합리화시켜주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적 충돌은 척결이 아니라 소통이 대안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차문화 사역(Cross-Cultural Ministry)에 헌신하였던 셔우드 링엔펠터(Sherwood Lingenfelter)와 마빈 메이어스(Marvin Meyers)는 문화적 갈등과 충돌의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상황화 모델(Incarnational Contextualization Model)을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점에 서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과 소통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화복제물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성육신적 상황화 모델이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통의 원리였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을 소통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전제적 이슬람국가 견제, 민주주의 개화되도록”

허핑턴포스트, 서방-이슬람 대립구도 해결위한 대안 제시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대한 이슬람 과격분자의 테러 사건 이후 상황이 우려스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가 잠재적 테러위험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과격분자에 대한 전면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고 독일을 위시한 여러 지역에서 극우세력이 중심이 된 반이슬람 시위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심각한 후폭풍은 바로 "서방 대 이슬람"이란 잘못된 프레임을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 위험론이 본격 제기된 것은 냉전 종결 이후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충돌론'을 제기하면서였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이자 옥스퍼드대학 교수인 조지 몬비오는 이를 사회주의라는 적이 사라진 후 새로운 적이 필요했던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해 이슬람이란 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이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다.

처럼 사용하면서 이슬람포비아가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2006년 유럽의 이슬람 사회를 취재하면서 만난 몬비오 교수는 이슬람포비아를 또 하나의 인종주의라고 단언했다. 인종주의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폭넓게 반 이슬람 정서가 잠복해있는 상황에서 터진 샤를리 엡도 테러사건은 유럽 내 극우세력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샤를리 엡도에 대해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대적점에 서있던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갑자기 표현의 자유 옹호자를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서방이 자랑해온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유럽이란 정신을 지켜내는 일이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 이슬람 과격분자들을 만들어내고 이슬람의 테러위험을 초래한 데는 서방의 책임도 크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서방국들은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독재정

관하지 않다. 2005년 파리를 뒤흔 들었던 교외폭동은 프랑스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젊은이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슬람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배제와 차별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구실을 해왔다. 샤를리 엡도 사건의 범인인 쿠아치 형제 역시 고아원에서 자랐고 변변한 일자리를 갖지 못

유럽의 이슬람이민 급증, 십자군 전쟁과 유사 반이슬람 극우세력과 이슬람극단주의에 맞서 이슬람 주민 등 이민자에 대한 차별 없애야

사실 유럽 등 서구에서는 이슬람 대 서방이란 프레임이 먹힐 수 있는 역사적 현실적 배경이 존재한다.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해 유럽 본토로 진출하려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오늘날의 상황도 1000년 전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슬람 이민이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무슬림 인구 비중은 2010년 현재 6% 정도다. 유럽 주요국 가운데 프랑스가 7.5%로 높은 편이고, 독일과 영국은 5% 내외를 차지한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유럽 인구 가운데 무슬림의 비중은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와 백인의 유럽'이란 낡은 비전을 가진 유럽인들에게 이것은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니다. '반(反)이민-반(反)이슬람'을 기치로 내건 극우정당들이 유럽 곳곳에서 발호하게 된 배경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이슬람과 극단주의를 동의어

자처하며 반이슬람 반이민 분위기를 피우기 위한 선동에 돌입했다.

독일에서는 10월 드레스덴에서 결성된 '서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이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0월 이래 매주 월요일마다 반이슬람 시위를 벌였지만 그리 많은 지지자를 모으지 못했던 이 단체는 샤를리 사건 이후인 지난주에는 드레스덴에서만 2만 5천명의 시위대를 끌어 모으는 괴력을 발휘했다.

메르켈 정부는 이들을 흘려보내기로 폄하했지만, 이민법을 강화하고 무슬림에게 독일문화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려는 이들의 주장에 독일인들의 절반가량이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게 폄하해버리고 말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제 유럽의 양심세력의 책무는 분명해졌다. 반이슬람주의를 부추겨 권력을 쟁취하려는 극우세력과 유럽인들의 피를 요구하는 이슬람

권을 지지하면서 그 지역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데서 배태됐다. 알카에다는 애초에 사우디 전제정부를 전복하기위해 결성된 단체였다. 그들이 미국 등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미국 등이 사우디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부패한 사우디 정권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유럽 내 무슬림들이 이슬람주의, 나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 사회에서 차별 받고 있는 그들의 현실과 무

하는 주변적 인물이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알게 되면서 스스로 대의를 위한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럽이 진정한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란 가치를 지켜내려면 전제적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들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국 내에선 이슬람 주민을 위시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만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5년 봄학기 특강안내

D.Min (박사과정)

- ▶ 3월 특강 (March 16-20, 2015)
CL 810 Global Strategic Leadership
Dr. Youngsoo Park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Church Music (박사과정)

- ▶ 6월 특강 (Jun 09-2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on Kim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이슬람 신앙 본질 아닌 이데올로기 불과

(1면에서 계속)
이데올로기와 거룩한 전쟁에 참가하는 전사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은 바로 좌절에 빠진 젊은 무슬림들이 너무 손쉽게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 지하철 테러사건으로 연결됐고, 지금은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 수천 명을 그리고 파리에서 17명이 살해되게 된 것이다.

이슬람국가(IS)는 알카에다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한 살상 방식을 신봉한다. 심지어는 알카에다조차도 IS의 잔인성을 비판할 정도로, 그 도가 지나치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등을 통한 유혹과 가장 급진적인 이슬람 설교자들의 메시지에 노출이 되고 있는 수많은 젊은 무슬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급진적 성직자들을 검열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성전주의를 부추기는 영상이나

사이트, 블로그, SNS의 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진지한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교



리들을 자신들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IS와 같은 급진적 교리에 더 이상 선량하고 무고한 무슬림들이 빠져들지 못하게 노력하고 있는 자구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슬림이 과반수가 넘는 인

도네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명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장은 얼마나 무슬림들이 관용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다. 또한 얼마 전 이집트 국민들은 온건한 성전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의 재집권을 막아냈다. 아프리카 튀니지의 이슬람 정당인 엔나다(Ennahda)의 재집권도, 무슬림들이 막아냈다. 결국 이슬람 학자들은 성전주의의 종말은 무슬림 과반수인 지역이나 국가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변명과 자유를 이뤄내면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랍의 봄"을 맞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 성전주의를 충분히 물리칠 만큼의 민주주의를 꽃 피운 나라는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성전주의는 한동안 IS, 보코하람 그리고 알카에다의 제도약을 통해 더욱 더 기세를 부릴 수도 있다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유럽 청년들 왜 IS에 가담할까?

(1면에서 계속)
그가 창안한 '급진화 평가와 대처 척도(Assessment and Treatment of Radicalization Scale)'는 어떤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에 얼마나 취약하고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 쉬운지를 측정한다.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건 성격 때문이다. 그들은 지하드 이념, 복고 이념에 매료된다."

특정 사교방식이나 소외감이 청년 무슬림을 극단주의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로자 교수는 말했다. 그는 "그들은 대단히 독실하고, 일정한 지위를 원하고, 쿨(cool)해 보이고 싶어 하고, 인생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모욕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뭔가를 고민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싶어 하고, 피해의식이 강하고, 굴욕 당했다고 느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다. 만사를 흑백논리로 판단한다. 사고방식이 단순하다. 극단적 또는 절대적으로 생각한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동 일부가 프랑스에서 테러를 자행한 범인들처럼 때로는 그들에게 자극과 모험심을 준다."

프랑스인 형제 세리프와 사이드 쿠아치를 가리킨 말이다. 그들은 풍자 잡지 샤흐리 엠도의 파리 사무실을 공격해 기자 10명과 경찰관 2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인질극을 벌여 인질 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아메디 콜리발리도 있었다. 3명의 용의자 모두 알제리계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1월 9일 프랑스 치안군과 대치 중 사망했다.

유럽 전체 실업률은 11.5%, 청년층은 23.7%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했다고 뉴욕에 있는 호프스트라대 정치학과 캐롤린 두데크 교수가 지적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게 됐다. 일부는 '이들 이민자가 우리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실제로 아무도 그런 일자리를 원치 않는다."
많은 2000명가량의 외국인이 이

라크와 시리아에서 무장단체 소속으로 싸우고 있다고 추정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출신 1600명도 포함된다. 특히 프랑스가 직면한 숙제 중 하나는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통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자. 그들은 외모부터 다르다. 게다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 아웃사이더로 인식된다"고 두데크 교수가 말했다.

알제리계 프랑스인 다수는 프랑스 교외에 거주한다. 그중 태반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간주된다. "어느정도 계도(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빈민가)화됐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IS나 원리주의 살라피 이슬람이 대원을 모집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된다"고 두데크 교수가 말했다. "그들의 커뮤니티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있다. 청년 무슬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갖는다. 프랑스 내 자신들의 공동체에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기타 유럽국가에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됐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기독교다. 아마라심업에 따르면 이는 "유럽적인 특성의 일부"로 간주된다.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의 담론이 활발하지만 유대-기독교 유산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이 한 가지 문제"라고 그

가 말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무슬림 청년이 유럽 사회에서 갈수록 소외당하게 된다.

다문화주의는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모든 민족 및 종교 집단을 인정하는 이념이다. 그것이 거의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는 각국 정부가 그런 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두데크 교수가 말했다. 그 개념은 독일에선 1970년대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그것을 실패한 개념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스스로를 기만했다. '이민자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떠나갈 거야'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그녀가 말했다(BBC 보도). "그리고 물론 다문화 사회를 이뤄 함께 살아가며 서로 즐거움을 주는 접근방식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개방성 확대가 급진화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아마라심업이 말했다. "탈급진화 과정을 논할 만큼 우리가 정말 그 과정을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급진화 논리와 싸워 이기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가지 방법은 사회가 개인들을 더 폭넓게 포용하는 것이다."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삶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제작년처럼 지난해에도 읽어야 할 이메일을 5천개 이상 읽지 않고 지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3천여 개의 읽지 않은 이메일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정한 이메일을 읽는 원칙은 전화를 주신 분들의 것만 읽고 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7일 내내 쉬지 않고 사무실에 나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 준비, 설교 요청, 각종 예배 인도, 심방, 회의, 상담 등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TV 시청을 포기했고, 그 다음엔 즐기던 테니스와 바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어떤 기사들을 읽을 것인지를 정하고 읽는 시간을 제한했으며, 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원칙을 세웠고, 아침집안 성도님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포기했습니다.

분주한 목회 일정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끔 연락도 없이 불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계시어서 리듬이 깨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즐거운 일여서 유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2015년을 시작하고 점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며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요? 신앙과 삶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쏟아져 들어오는 '바쁜' 일들에 몰두하다보면,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모두 각각 '한 사람 제자삼기'를 우선순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제자 삼을 사람을 정하기로 하고 어떻게 그를 제자로 빛어낼 것인가? 를 깊이 생각하며 실천해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제자 훈련도 3개월 과정, 1년, 2년 과정을 만들어놓습니다. 체계화된 과정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점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는데도, 과정만 이수하면 자기가 치른 희생과 열정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체계화된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에 가깝습니다. 제자삼기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그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듯이 그도 즐겁게 읽도록 본을 보이고,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나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세상 끝 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시론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세상을 대적한다고 미워하여 버리시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무력으로 정복하시지도 않으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구현이다.

우리가 이슬람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랑이 있는가? 그들의 우리의 무엇이 되는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며, 적대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복음을 통한 소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방세계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핵심 가치인 자유, 인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진정한 자유와 인권은 타 문화에 대한 조롱과 정복에 있

지 않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여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의 폐해를 통한 역사적 교훈은 "상대 문화를 적멸하고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화와 복음으로 소통하라!"는 것이다. 성육신적 소통의 원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시작된다. '온유'는 힘이 없고 나약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하는 '프라우스'(praus)이다. 숫구치고 거친 힘으로 타 문화를 억압하고 정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남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

우고,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쏟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극단적 이슬람국가(IS)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이제라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교차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대적점에서 있는 문화충돌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Ode to 1st Generation(이민 1세대에게 바치는 헌사)

지난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국제시장'을 관람했습니다. 영어 제목이 '아버지께 바치는 헌사(Ode to father)'인 것처럼 이 영화는 경제 대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우리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그려내어 큰 공감을 주었습니다. 영화관람 후, 그 시절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40년의 이민생활을 하셨는데 장모님께서 영화 관람이 이번이

처음이고 장인어른은 아주 오래전에 '스타워즈(Star Wars)'를 관람한 후 두 번째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흔한 영화관도 한번 못 가셨지?' 그런데 제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애, 영화관을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시더군요. 이것이 대다수의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왠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 뒤에는 6.25전쟁 중, 얼떨결에 가

장이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모진 고생을 했던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와 같은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역만리 독일 광산으로 떠났던 파독 광부들, 꽃다운 나이에 미국땅에서 시체를 뒤으면서 힘든 노동을 했던 파독 간호사들, 외화를 벌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트남으로 갔던 기술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민사회의 성장과 성공 뒤에도 이민 1세대들의 '자바시장'이 있었습니다. 1.5세와 2세대들이 명문대를 졸업해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직(의사, 교수, 변호사, 과학자 등)에서 일하고, 주 하원의원, 카운티 슈퍼바이저,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에 선출되고, 다방면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들 뒤에 낳은 땅에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

습니다. '자바시장'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이 통통 부을 때까지 재봉틀을 밟았던 이민 1세대 어머니들, 전문직을 포기하고 낮에는 주유소에서 펌프질,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셨던 이민 1세대 아버지들, 우범지대에서 생명을 내놓고 마켓을 운영하고, 영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 대우와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발로 뛰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고달팠던 이민의 삶. 이런 이민 1세대들의 헌신이 밑거름되어 오늘날 이민사회와 1.5세와 2세대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십니까? 짧은 이민 역사 속에서도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이민교회들 뒤에도 '자바시장'의 희생을 감수한 이민 1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한 이민생활이던 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구역모임,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각종 부흥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교회에서 셋방살이하러 감치 남새 난다고 설움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모였고,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을 담가 팔아서 부족한 교회 재정을 메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엌일, 청소, 교회수리를 하고, 한글학교와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모아 드린 헌금으로 마련한 작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목이 터지도록 울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거칠고 고단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수고하며 신앙을 지켜왔던 이민 1세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1.5세와 2세대가 이 선교사, 신학교 교수, 목회자, 국제적인 컨퍼런스 강사, 미군 군목, '국제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의 총재 등등 다방면에서 크리스천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

은 이민 교회들이 오늘날 좋은 환경에서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를 꿈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세대에 '국제시장'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 LA 이민 1세대에게는 '자바시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1.5세와 2세대들은 '자바시장' 세대 부모님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갖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민 1세대의 '신앙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세대로 이어져 이곳 LA에, 전 미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세대로 이어져 이곳 LA에, 전 미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이원상 목사
(교회)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지상사역을 종결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επι ταυτη τη πετρα οικοδομησω μου εκκλησιαν,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24:14).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교회설립을 예언하신 그대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왔다면 주님의 지상대명령은 벌써 완성되었고 주님은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지상대명령이 성취되지 못했다면, 주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40만 교회가 있고, 한국에는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몇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교회는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마4:18-20).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제자양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8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을 닮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16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켄터키 루이스빌의 사우스이스턴 크리스천처치를 목회하시는 Kyle Idleman 목사가 쓴 "Not A Fan"이란 책은 백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FAN이란 말은 운동경기 팀이나 연예인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도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A Completely Committed Follower of Christ)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 제 1장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

숨을 걸고 따르는 자입니까? 정직하게 진단해보십시오(Fan or Follower? An Honest Diagnosis)"라고 묻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역대하 16:9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충성된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요한을 제외하고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이 제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같은 복음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2005년에 "복음연대"(Gospel Coalition)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펴낸 책이 "복음 중심의 사역"(Gospel As Center)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955년 LA 근교 가든 그로브에 세워진 로버트 솔러 목사의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는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이라는 TV 프로그램으로 온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57년 후인 지난 2012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하여 교회는 문을

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습니다(갈1:17-18).

조지 바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목사님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12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영적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부흥운동은 다 기도의 부흥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사탄과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에 성경적인 복음적인 기도처소를 설립하여 "국제선교기도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SSION: Prayer is Mission 기도사 선교입니다"라는 기도센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영생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는 구절의 "천국열쇠"란 곧 천국문을 열게 하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복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 되게 하셨습니다.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행2:36).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16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열쇠를 사용하라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는 말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4복음서의 결론이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고 지금도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는 (1)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2)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3)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즉 기도가 중심인 교회, 그리고 (4)천국열쇠를 사용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마태복음 16:13-20)

신약의 서신서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는 먼저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세우기 원하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18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Συ ει πετρος, και επι ταυτη πετρα οικοδομησω μου εκκλησιαν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 "이 반석 위에"(πετρα)란 베드로(πετρος)가 아닌 다른 반석(πετρα) 즉 이사야 26:4과 28:16에 예언된 단어를 말합니다. "주 여호와와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초 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고백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그 완성하신 복음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2년 동안 로마감옥에서 말씀전한 것을 사도행전 28:23, 31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세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핍한 시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염려하여 미국에서는 Tim Keller, D. A. Carson, John Piper, Bryan Chapel과

닫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없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막11:17)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7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기도모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 안디옥교회도 기도중심으로 모인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13:1-4).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복음전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흥태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은 세계가 Islamic State(IS)로 인하여 들쭉거리고 있다. IS를 자처하는 테러범들이 파리의 중앙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일본의 기자를 공격적으로 참수하여 동영상 세계에 올린다. 전세계적으로 젊은이와 어린 이들을 상대로 IS의 폭력운동에 가입하라고 유혹한다. 한국의 한 청소년도 IS에 가입하기 위하여 터키 국경을 넘은 것 같다는 충격적인 보도로 한국도 경악하고 있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혼돈된 세계관 때문이다. IS는 폭력적이고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슬람의 법(Sharia)에 의거한 정치적 이슬람 극단주의 신정국가-Caliphate를 세우는 것이다. 그들은 요

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고 동의되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게 된다. LiloydKwast의 세계관에 대해 잘 설명한다. 우리의 행동양식은 외적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이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고 그 가치관은 신념에서 비롯되고 그 신념은 세계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Timothy Warner와 Neil Anderson은 세계관을 영적전쟁이라고 정의한다. "세계관의 싸움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치열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티모시

이 신관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신관이다. 신은 유일한 신이라는 신관이다. 나의 신이 다른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으로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진 신이다. 이런 신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유일신적 세계관이다. (바)삼위일체 유일신론적 세계관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관이다. 삼위일체 유일신관으로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일하심으로 그분의 주권과 내재성과 초월성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다.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축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기독교의 유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살아계시고, 전전하시며 가장 순수한 영이시오,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성질이 없으시오..." 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이시며, 초월하시고, 내재

original world를 이해하는 안경이 되어주고, 타락은 현실세계를 진단하는 도구가 된다. 구속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보게 해준다. 최종준은 여기 세 가지에 '완성transformation'을 첨가하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완전한 창조였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롬3:23).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롬1:28). 존 칼빈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우상의 만연함은 타락의 징표이다. 타락은 인간의 실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파스칼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공백을 주목했다.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내 마음은 당신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하기 전까지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구속은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망가진 세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

혼돈시대의 성경적 세계관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르단과 레바논의 국경을 부수고 팔레스타인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세계관이다.

James W. Sire는 세계관을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 혹은 전제를 말한다"라고 했다. 세계관은 우리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일련의 전제 혹은 가정들을 말한다. 최종준 교수는 "세계관이란 세계와 삶에 대한 전제로서 체계적인 설계를 가지며 모든 인간 활동의 현상과 방향을 결정하는 관점이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세계관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안목insight이며 인식understanding이며, 관점view-point'이라고 할 수 있다. 넓게 사용되는 세계관에 대한 비유는 창문과 같다. 또한 안경과 같다. 세계관은 창문의 크기만큼 넓게 보고, 세계관의 색깔대로 본다.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 가치관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게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확고히 서

위너는 영적 대결을 세계관의 대결이라고 말하고, Neil Anderson은 영적 대결은 곧 진리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계관은 개인의 삶을 결정하고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고 가정이나, 교회, 사회 국가,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기독교 유신론으로 시작한다. 유신론적 세계관도 여러 종류이다.

(가)다신론적 세계관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섭리로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나)범신론적 세계관은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신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다. 포스트모던이나 명상이나 요가에서 강조하는 내면의 신을 끌어내려는 운동도 이 세계관의 산물이다. (다)이신론적 세계관은 범신론과 반대 개념으로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신의 내재성을 부정하는 신관의 세계관이다. (라)일신론적 세계관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듯이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라는 신관을 바탕으로 한다. 각 종교는 각각의 신의 명칭과 자신의 신을 말하지만 결국은 같은 한 신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며 이해이고 접근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신관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세계가 일신론적 세계관이다. (마)유일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하시며, 전지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선이시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유신론에 대하여 다른 세계관들도 존재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Robert S. Knudsen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중심한 진리에 대한 반성으로 심오해진 체계화된 지혜이다"라고 정의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즉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양승훈 교수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대체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뼈대 속에서 발견되어 왔다"라고 주장한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이슈를 바르게 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의하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성경을 토대로 할 때에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골격을 발견할 수 있다. Albert M. Wolters와 Michael W. Goheen은 성경적 세계관의 고전으로 꼽히는 Biblical Basic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에서 그 골격을 "창조form, 타락deform, 구속reform"으로 제안한다. 창조는 원래의 세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타락한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되 개인의 구원을 완성시켰다. 영원히 죽은 생명을 새 생명으로의 대체exchange 하셨다. '예수 안의 새 생명'New life in Christ은 죄와 죽음, 저주가 묶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시작이며 구정이며 결과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증생하게 하시고 성화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 타락하여 망가진 세계를 원래 창조 때의 세계로 돌려놓는 회복사역이시다(마 11:5-6, 사61:1-3).

한국에서 터키를 거쳐서 실종된 청소년을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공격에 미혹되는데 IS와 같은 또 다른 사단적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확실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자.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모세와 이스라엘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바다가 영어 이름으로 보면 바다(Red sea)라고 말하는데 과거 홍해 바다가 보통 바다 색깔과 같이 푸르고 똑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홍해바다라고 부르지는요? -토랜스에서 정희은)

A: 히브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바다를 양수프(yam suph)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갈대바다(Reed Sea)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원래는 Reed인데 성경번역자가 혹은 인쇄자가 깜빡 잊고 그만 글자 한 자를 빼먹은 것으로 잘못 쓰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세기 전 영국지도에 Reed Sea에서 한 자를

홍해의 히브리어는 '갈대바다'...

붉은색 산호초가 많아 붙여진 듯

빠먹어 Red Sea로 인쇄하게 된 이후 갈대바다를 홍해로 오역하여 불리우게 됐다. 홍해는 원래는 갈대바다(Reed Sea)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원래는 Reed인데 성경번역자가 혹은 인쇄자가 깜빡 잊고 그만 글자 한 자를 빼먹은 것으로 잘못 쓰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세기 전 영국지도에 Reed Sea에서 한 자를

사실 홍해는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그리고 페르시아만까지 걸쳐있는 바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홍해(붉은 바다)란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분명 바다가 붉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겨났을 텐데, 저 역시 8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붉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푸른 바다입니다. 그러다가 저녁노을이 질 때나 건너편에서 아침노을이 질 때는 붉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홍해를 붉은 바다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홍해 해안에는 산호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때 물이 밀려나 가면 바닷속 깊이 있던 산호초들이 수면 가까이 자리잡게 됩니다. 물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붉은 산호초들 때문에 바다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호초는 홍해 전체에 걸쳐 많이 자라고 있어서 아마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홍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홍해는 히브리어로 갈대바다라 한다면 갈대는 사실 민물에서만 자라는 것이기에 우리의 의문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갈대바다는 내륙에 있는 호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카바만은 소금이 있는 바다지만 갈대들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갈대가 자라는 바닷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대는 일반적으로 민물에서만 자라는데 홍해의 바닷가에서는 실제로 바다인데 갈대가 자라는 것을 이상히 여긴 고대의 여행자들이 이 바다를 갈대바다라 불렀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 1월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3일 인천강화교회(이철홍목사)
-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 11월 ~ 13일 (함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23일 ~ 25일 동충교회(윤석호목사)
- 27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3월

- 2일 ~ 4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 9일 ~ 11일 (함동)태백시찰 연합성회
-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7일 ~ 29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4월

- 1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5월

-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1일 ~ 2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014년 1월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 1월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월

-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 17일 삼일교회(원용식목사)
-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월

-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한규목사)
-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일 ~ 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6일 GST 33rd 신학생훈련
-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8일 ~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4일 LA 평화교회(김은목사)
-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9월

-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3일 ~ 16일 말레시아어 KL중앙교회(이종일목사)
- 양문교회(정영호목사)
-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차유집회)
- 오명이어교회(김형재목사)
- 21일 ~ 23일 블레스 샬레교회(고영수목사)
- 24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 25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 28일

10월

-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 (마라톤 블레스 집회)
-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원 강의
-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 1월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서부 라와(Western Lawa)



서부 라와족은 중국 남쪽 윈난성의 산과 계곡 지대에 살고 있다. 라와족은 "블랑(Blang)"과 "바(Va)" 두 부족으로 나뉘어진다.

한 땅을 찾아서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더 높은 고지대로 스며들어갔다. 1965-1976년에 이르는 중국의 문화혁명의 기간 동안 6천만 이상의 학생, 공무원, 이주 농민, 실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국경지대로 보내져 그곳에서 정착하게 됐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서부 라와족은 가족 간에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된 땅은 매매할 수 없다. 가령 마을의 어떤 주민이 외부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 그가 소유했던 땅은 마을의 땅이 된다.

있다. 각 마을마다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며 농부들의 생산물을 멀리 떨어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

신앙 1960년 프랑스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라와족은 북부 미얀마와 중국 남서부의 다른 소수 민족과 마찬가지로 "야만적인 와(Wild Wa)" 부족으로 언급되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서부 라와족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라와족은 그들의 새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케냐 기독교라디오방송서 코란 방송

케냐의 기독교계 라디오 방송에서 코란 구절이 방송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전파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케냐 라디오방송국 '희망 FM'에서 27일 심야에 코란 내용이 방송됐다고 케냐 신문들이 29일 보도했다.

'희망FM'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기업으로 "케냐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주 케냐신문 '더 스타'의 웹사이트가 해킹 당해 테러관련 문장이 게시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11일에는 케냐 목사가 모바사에서 오토바이에 탄 무장괴한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샤바브'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IS, 日인질 살해... 중동선교 위축 우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1일 일본인 인질인 고토 겐지(後藤健二·47)를 살해했다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해졌다.

이날 요르단 A선교사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밤늦게 다니는 것을 삼가는 분위기다. 일본인 인질 사건을 계기로 납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걱정이 앞서다 보니 활동이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했다.

레바논 B선교사도 "인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중동 사람들은 중국 일본 한국을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IS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단체들에 의한 모방 납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르단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말 F-16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인 알카사스베 중위가 IS에 생포됐고 최근 일본인 인질과 함께 국제 뉴스로 떠오르면서 현지인들 사이에서 IS는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란정부, 지난 성탄절에 기독교인 30여명 체포

이란 국가안보 요원들이 성탄절 모임을 하던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금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오픈 도어선교회는 최근 이란 아시리아 오순절 교회 전 리더 빅터 베스 타메즈(60) 목사와 2명의 개종자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란 기독교 매체인 모하벳(Mohabat) 뉴스는 체포 당시 보안당국에서 타메즈 목사의 컴퓨터와 성경 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고,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재판소에 의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이슬람혁명재판소는 새 지도자를 세우고 아시아리아 예배를 드리는 조건으로 교회 문을 다시 열도록 허용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성탄절 테헤란의 한 가정교회에서도 기독교인 8명을 체포했다. 한 기관은 최근 5명의 기독교인들을 보석 또는 기타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아시리아인 기독교인은 1만-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페르시아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 압력을 가해 왔다.

이란에서는 아르메니아인과 아시리아인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페르시아인은 무슬림으로 정해지며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배교자로 간주된다.

오바마 "IS 억류 마지막 미국인 구조 총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마지막 미국인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 미국인 인질인" 26세 여성 구호요원의 억류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그의 위치확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시리아에서 IS에 억류됐다. 미국 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우려해 연례 신원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IS 인질들의 참수영상을 봤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을 강도 높게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2일 방송될 예정이지만 NBC는 이날 편집본을 공개했다. IS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 구호활동가 피터 캐식을 잇따라 참수했다.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반군 500명 사살

나이지리아 북동부 최대도시 마이두구리에 대한 두 번째 공격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 보코하

람 500여 명이 사살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새벽에 시작된 전투에서 무장반군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상황은 진정됐다"고 밝혔다. 한 고위 보안관계자는 이 전투에서 500여 명의 보코하람이 사살됐다고 말했다.

인구 200만 명의 마이두구리는 보르노 주(州) 주도이자 보코하람이 태동한 곳이다. 보코하람은 지난 달 25일에도 마이두구리를 공격했으나 헬기 등을 동원한 정부군의 반격으로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지하드 존' 공범, 런던 목사에게 메시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공개한 참수 동영상에 수차례 등장한 '지하드 존'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국 목사에게 메시지를 남겨 당국이 이들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나섰다.

영국 남부 억양을 구사하는 IS 대원 지하드 존은 지난해 데이비드 헤인즈와 앨런 해닝 등 서방 인질의 살해 협박 및 참수 동영상에 이어 1일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47)의 참수 동영상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드 존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네로 사라이바(28)는 작년 7월 말 트위터를 통해 런던에 거주하는 기독교 목사 대니얼 다우너(30)에게 "내 아들의 사진을 가진 것이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라이바는 같은 날 오른손 검지를 치켜세우는 IS식 손인사도 보냈다. 그러나 다우너 목사가 사라이바와 아는 사이인지, 그의 메시지에 답변을 보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앙골라에서 태어난 사라이바는 포르투갈을 거쳐 영국으로 이주,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2012년 시리아로 갔다. 그가 살았던 런던 북부 월섬스토의 아파트는 2006년 항공기 테러를 기도했던 액체폭탄 제조 공장과 근거리에 있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삼일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본 교회는 설립 22년 된 교회로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복음언약교회(The Evangelical Covenant Church) 교단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 1) 자격: 1. 정규 신학대학Th. M 혹은 M. Div 학위 이상 소지한 분 2. 목사안수후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4. 2중언어 (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5. 연령 40대에서 50대
2) 제출서류: 1. 이력서 2. 최종학력 증명서 와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소개서 (가족소개 및 사진포함) 4. 최근 음성설교 2편 (해당 CD/DVD) 5. 목회비전 및 신앙고백서
3) 제출처: 1. 우편: 삼일교회 청빙위원회 Tacoma Trinity Church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2. E-Mail: tyyounglee@gmail.com
4) 제출마감: 2015년 2월28일 까지
5) 기타사항: 접수된서류는 반환하지않으며 선임된분에만해서만 개별통지 드립니다. 전화문의: 이영환 청빙위원장 (360-265-4961)

타코마 삼일교회 TACOMA TRINITY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1년 구독료, and rows for US, Canada, Korea/S. Asia, Europe, N. America, Africa.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checkboxes for subscription type and language preference.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창조과학 칼럼 (221)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30) 해산의 고통과 노동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는 그림이 벽에 붙어 있다. 보통은 얼굴 표정과 함께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가 0에서 10까지 단계로 되어있다. 아픔이 전혀 없는 상태는 0으로 표시하고 2정도까지는 웃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점점 올라가 8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각한 정도다. 간호사들은 가끔 산모에게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본다. 언제 아이가 태어날 지 짐작하기 위함이다. 최고의 아픔은 10인데 이 아픔과 비교되는 다른 아픔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 통증이 10에 도달했을 때 두드러져서 아이가 태어난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pain)을 몇 배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3:16 NASB).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이 따를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고통지수 10에서 몇 배로 나누면 아무리 아파도 3-5 정도의 통증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라면 여성들이 아이 낳는 일을

내지 않게 된 것인데 역시 이로운 미생물들의 수가 줄어들었는지, 미생물들의 능력이 떨어졌는지, 작물들과 땅의 관계가 바뀌어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모두 다인지 알 수 없지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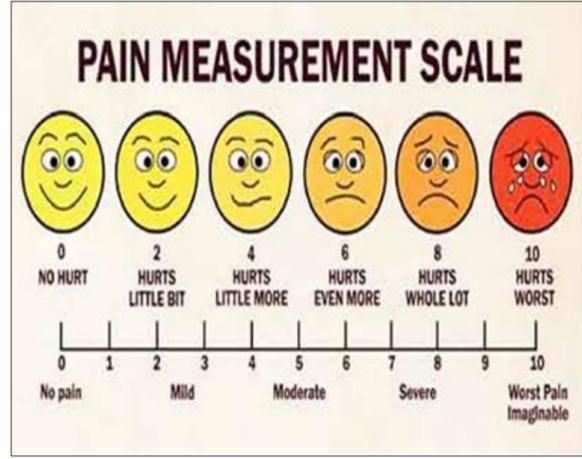
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21, 22). 아담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

아니었다.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나 압점은 정상적인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들이 없다면 부모님의 부드러운 터치도 몸에 가해지는 위험도 느낄 수 없다. 또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늘고먹는 세상이 예뻐서 아니었다. 체육과 오락을 통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건디기 어려운 통증과 힘겨운 노동이다. 그러나 건디기 힘든 고통과 힘겨운 노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겨주신 은혜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아담은 오실 구원자를 알았고 기다렸다.

고통과 힘겨운 노동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은혜 어려움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대한 소원 갖게돼

크게 염려하지 않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기대와 기쁨으로 더욱 행복한 임신 기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자녀를 여섯 낳은 아내는 '즐거웠다'는 표현에 강한 의문을 달았지만 이것이 바로 낙인과 저주의 차이인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을까? 증인 없이 이런 질문에 답하기란 정말 곤란하다. 생리학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으시다. 결론은 고통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아픔을 느끼는 통점과 압점의 수나 민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고 뼈를 비롯한 몸의 구조가 살짝 바뀌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창조 당시의 생리학적인 접근 유전적인 구조나 관계가 타락사건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바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예들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되었을 수많은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들이 지금도 오히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가축이나 농산물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범죄한 아담은 남은 평생 고생스럽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창3:17, 19). 성경은 그 이유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땅이 예전처럼 효력을



는 예전과 비교해 훨씬 적은 수확량이었다. 이런 흉작이 아담(인류)의 평생 동안 계속 되게 된 것이다. 당연히 필요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여 이마에 땀이 흘려야 했다(창3:19). 아담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평생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담은 이제 죽어 썩어지고 흙이 될 것이다. 아담에게 속한 하와도 아담과 함께 죽고 모든 창조된 생명체들도 죽어 흙이 되게 되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

하게 창조되어(시8:5)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매우 제한적인 공급만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 가장 비참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인 큰 고통과 노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배려도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에게 고통을 더하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결국 형벌의 목적이

과 하와는 가족옷과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알아 차렸을 것이다. 아담은 그 기대를 담아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자기의 아내에게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불렀다. 아담 본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고전15:22) 여인의 후손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란 의미를 가진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창3:20).

이 사실이 적혀 있는 성경을 신화로 혹은 설화로 전락시켜버린 크리스천들이 참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고 실재가 되는 사건들을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급감하고 있는 서구와 한국 교세의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여기에는 과학의 탐을 쓴 거짓 이론인 진화론의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고통지수 10은 무엇일까? 자기 형상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일 게다. 그들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이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미성을 완성으로 바꾸는 좋은 성품

원작 만화뿐 아니라 드라마로도 인기몰이를 한 '미성'은 직장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어 보는 내내 마음 한국적이 애잔했다. 무엇보다 책상위의 가족사진을 뒤집어 놓은 채 일하는 오자장의 고민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내의 잔소리가 생각나서 사진을 뒤집어 놓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족들에게 늘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거기 담겨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일터에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바쳐야 하는 그들, 그러나 정작 가정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조차 희미해져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마는 그들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부성의 부재' 현상은 한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부성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사례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자녀의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로서의 친밀감이 곧 '부성'이다. 부성의 부재는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권위적인 아버지 문화와 더해져서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 과정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주범이 되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친밀감 속에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무관심에 방치됨으로써 부정적인 성품 형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딸들의 경우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성성에 대해 불신함으로써 이성관계의 단절을 불러오기도 한다. 남자들이 경우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거나 공격적 성향을 갖기 쉽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 부성의 부재가 대물림되고 있을까? 그 까닭은 지금 세대 아버지들의 양육방식이 전 세대 아버지들의 양육방식을 닮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좋은 기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버지들은 자녀들과도 좋은 기억을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해온 자녀는 훗날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와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된다.

부성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즉 아버지가 부성을 더 많이 표출할수록 자녀의 학업 성적이 향상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아버지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자녀들의 행복도는 무려 8%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니 하루 10분씩 자녀들과 '해피타임'을 갖고 자녀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더 훌륭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비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직장에서의 성취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직장에 몰두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더라도 휴일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 놓자고 조르다가 끝내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자, 또 아버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던 청소년시절도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 아들들만큼은 내가 느낀 부성의 부재를 대물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향한 부성을 표현해야 한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자한다면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프레디(Friend+Daddy)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을 갈망한다. 2015년은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프레디'로 '완성'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해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20 주일3부예배: 오전 9:40 주일4부예배: 오후 1:10 주일5부예배: 오후 12:30 주일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www.youngnak.com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nachimban.org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Blvd., Red, CA 92821 (Lambert & Puente) www.nachimban.org</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찬양: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11:00 www.nachimban.org Tel: (626)793-0880, 0200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EM): 오후 1:30 주일4부(EM): 오후 2:00(EM)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www.asolidrock@gmail.com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리디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8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전 1:20 영양회(영성): 오후 7:30, 평일(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p>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org</p>	<p>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영양회: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468-1234, Fax: (323)468-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9:30 영양회: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86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519 S. Western Ave., 9079 Tel: (213)380-9377, 9079</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jpc.org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6:00(토) Tel: (310)744-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배달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2부: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주일5부예배: 오후 11:00 대학영양회: 오후 1:00 일요일: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8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회: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회: 오전 11:00(다문화)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gjc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y.com / e-mail: pastor@cornestonety.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금요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회: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목회서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2015년 새해를 맞아 목회자로서 어떤 덕담을 할까? 생각하다가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사람들이 오늘 현대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싸움판의 장소’, ‘교회는 교제와 비즈니스의 장소’, ‘교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꾼들의 모임’, ‘구제를 무시한 화려한 성전건축에만 혈안이 된 교회’ 등으로 비아냥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필자는 16년 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목회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

을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하나님을 교회의 설립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곧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 (2)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 (3)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4)교회의 설립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에 있음을 자각한 교회. (5)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 (6)말씀과 체험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회. (7)성령의 시키는 일을 행하는 교회. (8)성도 간에 권면, 위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9)구원의 확증이 있는 교회. (10)이적과 기사 등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11)받은 은사와 능력에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의 일에 행사하게 하는 교회. (12)사랑과 복음에 대한 빛진자의 부담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13)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는 교회. (14)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15)영의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16)영혼구원을 책임지는 교회. (17)직급이 높을수록 낮아져 섬김의 도를 잘 행하는 교회. (18)말씀과 간증이 있는 교회. (19)세상 사람들도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교회. (20)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21)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 (22)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23)구제와 선교를 하는 교회. (24)버림받고 소외된 계층을 잘 돌보는 교회. (25)부기, 성별, 나이, 학문, 지역, 계급에 차별

이 없는 교회. (26)사명을 깨닫게 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교회. (27)교회 안의 문제는 조용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교회. (28)파수꾼의 사명과 추수꾼의 사명과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29)진리의 등대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30)받은바 은혜에 자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나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필자가 바라는 성경적 교회관이며, 목회의 비전이지만 나 자신도 감당키 어려운 일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금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를 다 이루어나기 시기를 축원합니다.

NC교협 새 회장에 송성섭 목사 선출 제25회 정기총회, 신년하례회 겸해

노스캐롤라이나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성균 목사) 제25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2일 오전 11시 샬롯 남부장로교회에서 개최돼 새 회장에 송성섭 목사(샬롯 남부장로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샬롯교협 25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송성섭 신임 회장은 “회원들 간의 화합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간단히 인사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나성균 목사(샬롯한인장로교회)의 인도로 송호철 목사(그린스보로한인침례교회)의 기도 이어 송성섭 목사가 사도행전 3:1-10의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성섭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그 이름을 통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름을 얻는 법과 사용하는 법을 아는

일이 중요하며 그 이름의 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주님과 관계와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배는 최동갑 목사(달리한인침례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서기, 총무, 회계 보고에 이어 임원선거를 통해 △회장 송성섭 목사(샬롯 남부장로교회), △제1부회장에 홍창우 목사(그린스보로 성은교회) △제2부회장에

이철 목사(RTP지구총교회)를 선출했다. 다른 임원진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임명하기로 결의했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남부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는 오찬에 이어 신년하례회도 겸했는데, 푸짐한 선물과 상품들이 준비돼 참석자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샬롯교협)



나성균 목사가 리더십클래스를 지도하고 있다

International Reading and Singing Festival 샬롯장로교회 전유니버시티 주최

Chun University(총장 전기현 장로)가 주최한 International Reading and Singing Festival이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열렸다.

19일 아침 개회예배로 시작되었다. 전기현 총장의 인사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나성균 목사는 “책은 훌륭한 신앙 선배들 및 세계 리더들과 나누는 대화이며, 이

시대 참된 지도자 양성의 지름길”이며, “음악을 통해 바른 정서가 함양되는 건강한 지도자를 길러내자”고 격려했다.

학장 이영기 장로의 지도 하에 오전에는 Reading을 오후에는 Singing을 지도하고 연습해 명실공히 헌신된 위대한 지도자 양성의 역사를 힘있게 시작했다. 페스티벌의 클라이맥스는 독실

한 크리스천으로 독일, 불란서, 헝가리, 중국, 한국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 상을 받은 싱가포르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Shaun Choo의 피아노 리사이틀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또 30일에는 금요 기도회의 짧은 디보선으로 시작돼 음악계의 베테랑들이 참여했다. 이날의 연주회는 참가자 연주회로서 주로 성악이 중심이 됐다. 소프라노 Sharon Neff와 김옥 교수, 김송이, 테너 이상민 교수와 송진섭, 바리톤 Masanori Takahashi 등이 솔리스트로 참가했으며, 어린이와 청년 참가자들도 앙상블로 출연했다.

특히 샬롯합창단(단장 및 지휘 이영기 학장, 총무 진태형 집사)이 마지막 무대에서 참가자들과 같이 연주했다. 이로서 공식 출범된 선교합창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전(Chun) 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협연함으로써 아름다운 시작을 알렸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오는 3월28일 파라과이 차코지역 인디언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는 정수기 보급을 위한 선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워터투게더’ 선교음악회 열린다 원하트, 찬양사역자 강찬 크리스천합합그룹 AMP 출연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워터투게더’ 선교음악회가 오는 3월 개최된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콘셉트로 열리는 이 선교음악회는 파라과이 차코지역 인디언 1,000여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원하트미니스트리의 피터박 목사가 한국의 오픈핸즈 선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교지 정수기 보급사역을 돕기 위해서다. 피터박 목사는 “오픈핸즈 선교단의 정수기 보급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 원하트가 참여한 것은 파라과이 차코

지역이다. 차코지역이 선정된 것은 물이 귀해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하는데 그들이 먹는 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이라 언급하며 “오픈핸즈 선교단을 통해 보급되는 정수기는 99% 정수되는 것이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연진은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인 강찬 전도사를 비롯, 한인 2세로 구성된 크리스천 합합그룹인 AMP가 출연한다. AMP는 CCM 등 워십 그룹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래 가사는 복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 방송인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했다.

또한 콘서트 장에는 존 최 목사(글로벌베이스교회 담임/자마 영여권 디렉터)가 말씀을 전한다. 음악회는 3월 28일(토) 오후 7시에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게 된다. 티켓은 35달러이며 이날 모아진 모든 티켓수입은 오픈핸즈 선교단에 전액 전달된다.

▲문의: (213)703-7663 (박준호 기자)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희생하는 교회되자”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개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 ‘2015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뉴저지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이병준 목사는 “모두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서로 만나면 힘이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

는 교협 연합체 안에 지체로 엮여 있는 뉴저지교협 회원교회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서 “조금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말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뜻은 하나로 통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질책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이의철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엘림크리스천밴드 찬양, 양준길 목사(증경회장) 대표기도, 김진수 장로(평신도부회장) 성경봉독, 뉴저지장로성가단(지휘 윤길웅 권사) 찬양, 김해중 목사(UMC 전 감독) 설교, 윤석래 장로(증경 평신

도부회장) 봉헌기도, 주정배-김지은 헌금특송, 김종국 목사, 유재도 목사, 최준호 목사 특별기도, 김용주 목사(한소망교회 원로)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하례식은 이춘기 목사(총무)의 사회로 애국가-미국가 제창, 이병준 목사(회장) 신년사, 손세주 뉴욕총영사 축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축사, 박찬순 목사(뉴저지목사회장) 축사, 뉴저지목사회장님성향장단(지휘 김종윤 목사) 축가 ‘이제 곧 그날 보리라’, 이병준 목사 후원금 전달식, 엄순희 목사(서기) 광고, 김장길 목사(증경회장) 폐회기도, 정성만 목사(증경회장)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김해중 목사는 ‘에베에셀의 하나님’(삼상7:12, 빌 1:3-6)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1세대가 가고 다음세대가 오는 모든 과정 중에 에베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는 2015년도가 되자”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기도시간을 통해 김해중 목사의 인도로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유재도 목사의 인도로 ‘교협과 교계를 위하여’, 최준호 목사의 인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후원금전달식은 중앙일보 천사운동, 밀알선교단, 패밀리터치, 김두화 목사 등에 총 4천 불의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OC장로협의회 주관 교회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강사 홍순관 목사가 강의 하고 있다.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OC장로협 홍순관 목사초청 교회지도자 세미나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김종대 장로)가 주관한 ‘홍순관 목사 초청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오렌지

카운티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 및 장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순관 목사는 ‘교회와 함께’, ‘교

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등의 세 주제로 나눠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교회의 몰락주의, 높아지는 종탑,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고 수와 양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세상의 거울 속에 비친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자”며 강의를 전개했다.

또한 장로협의회는 시대적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즉 스거울과 같은 역할 △정체성 확립 △변화의 소리와 공감대 형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목소리 Sounding Board 역할 △이벤트 주의 생각하는 죄 △근소 신학교와 목회자 양산 및 학위 남발에 대한 공동 책임 △이 시대를 향한 외로운 부르짖음 등에 대한 장로의 사명감을 일깨우는 이야기들로 전개해 나갔다.

(정리: 박준호 기자)



OC교협 신년하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5년 월별사업 발표·윤삼건 올겐 연주 오렌지카운티교협 신년하례회와 작은음악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15년 신년을 맞아 신년하례회와 작은 음악회를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갈보리새생명교회(담임 민

승기 목사)에서 가졌다. 1부는 신년하례 감사예배로 회장 김기동 목사의 사회로 후원이사장 이병식 장로의 기도, 이사장 영명민

목사의 설교, 증경회장 정영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순서는 호서예술 전문 학교 윤현숙 교수와 오르간리스트 윤삼건 씨를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3부는 총무 신현철 목사의 진행으로 2015년 사역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데, 1월은 미주한인의 날 기념 주청사 방문 기도회와 신년하례회, 2월은 제4회 OC단체장과 기관장과 정치인 초청 조찬기도회, 3월은 영적각성집회와 이민목회세미나, 4월은 OC지역 부활절연합세례예배, 5월은 제5회 사도 블레싱나잇, 7월은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 8월은 차세대커피퍼런스 등을 소개했다.

(기사제공: OC교협)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가 2월 22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수여식도 갖는다.
 ▲문의: (718)886-4040

“목회자 부부를 위한 사랑의 대화학교”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부부를 위한 사랑의 대화학교”가 뉴저지중부교회협의회와 찬양교회 협찬으로 2월 17일(화)과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찬양교회(담임 허봉기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정숙 박사, 김충정 박사, 임옥순 박사로 강의와 실습이 있다. 참가비는 부부당 100달러.
 ▲문의: (732)822-4969 rev.changwoolee@gmail.com

운동주 70주기 추모공연
 운동주의 시를 노래하는 “눈오는지도”(Snowing map)가 운동주 70주기를 맞아 보스턴, 뉴욕, LA, 서울에서 추모공연을 개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스턴: 2월 14일(토) 오후 7시30분 ECC 채플(보스톤한인교회) △뉴욕: 16일(월) 오후 8시 뉴욕장로교회 △LA: 22일(주) 오후 7시 스페이스 공감 △서울 27일(금) 오후 8시 북촌창우극장. 아름다운 운동주(이사장 이승중), 보스톤한인교회, 한미문화재단(KACF), 뉴욕장로교회(이승한 목사), 까마귀스튜디오가 후원한다.
 ▲문의: (201)835-8692 snowingmap@gmail.com

바울성서원 2015년 봄학기 개강
 바울성서원(St Paul Academy of Theology) 2015년 봄 학기 강의가 3월 2일(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뉴저지 팰팩에 소재한 필그림하우스(256 Broad Ave. 2층)에서 개강된다. 총 16주의 강의로 지난 학기에 이어 ‘로마서’(8-16장)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개강에 앞서 두 번의 특강이 열린다. (1)2월16일(월) 오후 8시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모형’(Missional Church Model) 강사 양춘길 목사 (2)2월 23일(월) 오후 8시 ‘인간 감정의 삼각 관계’(Emotional Triangle) 강사 임장기 교수.
 ▲문의: (201)638-5148 강원호 목사, (201)647-7766 박근재 목사

총 아동후원 100명, 2015년 일정 발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정기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2015년 1월 첫 정기월례회가 지난 29일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광고 시간을 통해 신규 아동후원이 26명 추가됐음을 알렸다. 이로써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해외아동 94명 결원과 북한아동 6명 등 총 100명의 아동을 후원하게 됐다. 또 2015년 정기예배 및 회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정기예배: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정기임원회: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전 9시30분 △아동후원선교사 방문(폐우): 7월-8월 수혜원자 및 후원자의 밤: 11월 29일(주) 저녁.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캐더린 목사의 인도로 기도 최재복 장로, 설교 김승희 목사, 합심기도, 광

고 김영환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희 목사는 마태복음 7장 19-23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열매”라며, “열매는 나눠주는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할 일은 나눠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이 열매로 받게 된다. 기아대책만큼 열매를 맺는 단체가 없다. 가장 아름다운 나눔과 베품의 열매 맺는 기아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돕는 사람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정기예배는 26일(목)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목회자부터 예배자가 되라”

미주여성목협, 김진호 목사초청 예배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한 김진호 목사 초청 예배 세미나가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뉴욕조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목회자가 예배자가 되면?”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장경혜 목사 사회로 안경순 권캐더린, 김수경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기도 이승진 목사, 뉴저지회원들의 특송에 이어 전희수 목사가 감사소개 후 시작했다. 전희수 목사는 “임원들이 금식하

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목회현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하고 김진호 목사의 약력을 소개했다.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담임인 김진호 목사는 미국다리농는사람들 대표로 “예배회복과 갱신운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작곡자이기도 하며 “그 집에서 만난 복음” “예배자의 마음기르기” 등 수

권의 저서를 저술했다. 김진호 목사는 “1984년 필리핀 선교현장에서 ‘예배자’로서 거룩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1989년 1월 예배학교를 처음으로 열었고 한국의 예배운동을 펼쳐나갔다. 오늘 여러 분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

님의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됐다. 오늘 하루 프로그램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를 경험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예수전도단 간사로 시작한 파라치치 선교단체 사역에서 목회자로 부르심까지 또 예배회복 자로서의 사역 등 간증을 섞어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점심식사 후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에서 송정미 사모가 찬양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송정미 사모 초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에 송정미 사모가 초청됐다. 지난 28일 저녁 찬양예배는 청년부의 은혜찬만찬 찬양과 워십댄스, 그리고 간증으로 시작, 특별 게스트로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가 초대됐다. 송 사모는 지난해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KYM 청년선교대회 참가 이후 한 달여 동안 미주 순회를 했으며 퀸즈장로교회 집회까지 마지막 일정. 27년간 찬양사역자로 활동했다고 스스로 소개한 송정미 사모는 ‘오직 주만이’, ‘누군가 널 위하여’, ‘축복송’, ‘기쁨부심’ 등의 찬양곡을 불렀다. 한편 송정미 사모는 오는 5월 30일(토) 카네기홀에서 찬

양사역자로서는 처음으로 집회를 갖게 됐으며 기도를 부탁했다. 송정미 사모의 찬양 후에는 김성국 목사가 “내가 다윗을 만나니”(행 13:22)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여러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자’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왜 걱정하는가. 왜 불평하는가. 왜 흔들리는가. 왜 지금 없다고 안절부절하는가.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우리를 변성케 하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주최한 예배 세미나 참석자들이 손으로 ‘사랑’을 표시했다.



CBSN 개국감사예배에서 CBSN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손 안의 방송”

씨존 인터넷방송 CBSN 개국감사예배

기독언론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이 기독교뉴스에 이어 인터넷방송 뉴욕기독교방송(CBSN)을 시작했다. ‘손 안의 복음방송’,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을 기치를 들고 출발한 CBSN(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of New York)은 지난 1일 저녁 개국감사예배를 드렸다. 사장 문석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9월 시험방송을 실시했고, 올해 1월부터 편성표에 따라 매일 12시간 생방송, 12시간 재방송으로 24시간 방송을 실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갖고 열성을 다하니 동역자가 생기고 방송국의 틀을 하나씩 잡아갈 수 있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개국예배는 최예식 목사 인도로 개국축하 광파례에 이어 기도 김영환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성경공독 이계훈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는 김승희 목사가 했다. 김승희 목사는 “나를 따르라”(마 19:16-21)란 제목의 설교에서 ‘모든 것을 갖겠으나 하늘에 쌓은 상급이 없는 부자청년’의 비유를 들어 “나눠주고 베푸는 방송국, 복음 증거에 전력을 다하는 방송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먼저 베풀 때 인정받을 것이고, 주님 만을 구할 때 나머지 축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CBSN전속합창단 특별찬양, 홍보동영상 상영, 방송사역자 소개 및 사장 인사말, CBSN 청취시연회, 현금송 문진영, 현금기도 이추실 목사, 축사 이재택 목사, 권면 이만호 목사, 감사패 전달 최재복 장로/김기훈 전도사, 광고 임병남 목사, 축도 허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어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어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와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목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량,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966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감격 누리길”

남가주교회음악협 제14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주최한 제14회 창작성가의 밤이 2월 1일 저녁 7시 미주영광교회(담임 유종열 목사)에서 열렸다.

본 협회 직전회장 조성환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창작성가의 밤은 코랄리움(지휘 이경원), 노보 코랄(지휘 김원재), LA 레디스 싱어즈(지휘 이종현), 캠프랄(지휘

이수경)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서병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971년에 창립된 본 협회는 올해 43살이 됐다. 이번 창작성가의 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제14회 창작성가의 밤이 미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캠프랄이 찬양하는 모습



새언약교회 이전감사예배가 끝나고 순서를 맡은 목회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했다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세상을 변화시킨다’

남가주새언약교회 설립4주년기념 이전감사예배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 3407 W. 6th St, #601, LA)는 2월 1일 교회설립 4주년 기념 및 이전감사예배를 가졌다.

강양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이용남 목사(은혜세계선교회)의 기도와 오병익 목사(건강한교회)의 설교에 이어 손민호 목사의 헌금기도와 최아브라함 목사(UCS신학대학교 총장)의 축사, 그리고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의 격려사, 최한오 목사(나성성지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선포한 오병익 목사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남가주새언약교회가 복음만을 선포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이 불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교제와 나눔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해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됐다.

한편, 남가주새언약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슬로건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지난 2011년 1월 1일에 설립됐다. 담임 강양규 목사는 Sungkyul University(B.A)와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쥘레신학대학교(M.Div)와 Azusa Pacific University(D.Min), UCS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

▲문의: (213)434-1083

(기사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자녀중독치유 학부모 세미나

햇빛재단은 자녀의 중독에 대처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2월 6일(금)부터 8일(주)까지 필라에 위치한 햇빛재단센터(4655 Oil Well Rd)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녀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얻기를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 문제를 극복한 부모의 간증도 제공된다. 자녀들의 마약 및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 방법, 문제의 단계를 이해하기, 근본 이유 파악, 대처법, 부모와 대화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잔 비 누쉬 중독전문상담가와 김영일 목사가 맡는다.

▲문의: (213)700-1397

미술치료 통한 스트레스 관리

YNOT파운데이션은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2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아가페홀 회의실(A116호)에서 갖는다.

▲문의: (323)488-5800 조키미

나침반교회 제2회 가정부흥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제2회 가정부흥회를 ‘이제는 살아 있다!’라는 주제로 2월 6일(금)부터 8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선목 장로(한국아버지학교국제본부장)이며 일정은 금요일 오후 7시 45분, 토요일 오전 6시30분, 오후 7시, 주일 1, 2부 예배시간이다.

▲문의: (562)691-0691

베델한인교회 김한요 목사 위임예배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사진)는 2월 1일 오후 4시30분 김한요 목사 위임예배를 개최했다.

본 교회 얼바이트 워십팀의 경배와 찬양 후 조철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박종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브리엘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러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담임)가 누가복음 5장 1-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빌마릭 목사(C&MA SPD Superintendent, 노회장) 집례로 위임 서약을 했으며 위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임 손인식 목사는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으며 김한요 목사의 어린 시절 스승이었던 김학준 목사(애틀란타장로교회 원로)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불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에서 노진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주님 바라보는 눈 흐리지 말라”

아주사퍼시픽,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 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은 2015년 불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를 LA리저널센터(디렉터 도널드 브라운 박사)에서 1월 27일 오후 5시에 개최했다.

본교 한인석사과정 프로그램 학생회 정산 총무의 찬양인도와 김재호 학생회장의 사회로 열린 개강예배는 이태주 학우가 기도했으며, 필드에디션 교수인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좋은 것’(눅 10:38-4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 목사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 설교, 찬양인도, 전도 등은 비중이 큰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주차 관리나 부엌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작은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본분내용역시 주님이 마르다를 탄한 이유는 마르다가 부엌일을 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서가 아닌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했지만 적자 자신의 분주함으로 주님이 아닌 마리아를 보게 된 것이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하며 “신학공부와 사역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학업을 하는 동안 절대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재학생 김수영 학우와 졸업생 오우영 목사가 특송을 했으며, 변명태 교수(본교 석사 한인 프로그램 디렉터)와 도널드 브라운 박사가 환영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다니엘 뉴먼 교수(한인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화날 때 대처하는 방법 강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오픈포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오픈포럼이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에드워드 비다우리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지국장인 강사로 나서 포럼을 진행했다.

에드워드 지국장은 “이민사회 문제 중에는 경제적 문제, 부모와 자녀 간 갈등 등을 비롯해 다양한”다고 말하며 “갈등이 일어날 때 하는 것 중에는 예방차원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며 무작정 화를 안내는 것보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지국장은 “갈등 문제의 근원이 정신질환에 있을 때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가족 간 관계를 돈독하고 친숙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며 치료받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진 자들을 우리들의 가족이라 친구라고 여겨야 한다”고



LA정신건강국 주최 오픈포럼이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설명했다.

그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역은 그들만을 위한 모임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

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담뉘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월) 없음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Briarwood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일):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전 11:00 고, 중, 고부예배: 오전 11:00 Tel: (704)634-0900 / 0998(렉스클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jes.com
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1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253)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역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사택: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rc.org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pkpc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www.kucj.org

한국갤럽 최근 30년 종교의식 변화 조사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은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들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 1차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84년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89년, 97년, 2004년에 이어 2014년까지 총 5차례 비교 조사를 실시한 내용 가운데 개신교 관련 부분을 중점 분석했다.

◇종교 관심도 '뚝'...9세 이하 신앙입문 비율 가장 높아=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분포 비율에서는 비종교인(무교)이 50%로 가장 많았다. 2명 중 1명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2004년보다 3% 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19~29세의 무교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종교별 분포는 불교(22%)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21%), 천주교(7%)가 뒤를 이었다. 10년 전 통계와 비교하면 불교인은 2% 포인트 줄었고, 개신교인 및 천주교인은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전반적으로는 무교가 늘어나는 등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선교교육재단 김규태 사무국장은 29일 "무교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종교를 가진으로써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라며 "개신교 등 기존 종교들이 위로와 치유, 회복 등 종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종교를 가진 이들의 경우, 어릴 때 신앙에 입문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몇 살 때부터 종교를 갖

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9세 이하'가 26%로 가장 많았다. '9세 이하'라고 답변한 사람 가운데 남성은 32%, 여성은 21%였고, 종교별로는 개신교인(31%)이 최다였다.

다음세대 복음전도 운동인 '4/14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승훈 한동대 총장은 "4세에서 14세까지가 인성과 영성을 갖추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인 동시에 복음 수용성 또한 가장 높은 때"라며 "한국교회가 이 같은 연령대를 타깃으로 한 복음화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예배·헌금생활엔 '열심'인 개신교인=예배나 미사 등 종교 의례 참여율에 대한 조사에서 '일주일당 1번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은 개신교가 80%로 가장 많았다. 천주교인은 59%였고, 불교인은 6%에 불과했다. '십일조 이

행'에 있어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개신교인은 68%, 천주교인은 36%로 집계됐다. 30년 전에는 각각 42%, 26%였다. 20년 이상 종교 생활을 이어온 '장기 신앙인' 비율도 개신교인이 64%로 가장 많았고, 불교인(61%)과 천주교인(5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목회·선교 전문가들은 "개신교인 상당수는 종교 의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 종교인에 비해 신앙에 대한 헌신도가 높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을

개신교만 놓고 보자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도 대상인 비종교인들로부터는 가장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왜 그럴까. 전석재 한국선교신학회 회장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개신교인들의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김신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목표로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의 모범만 강조해온

“종교 없다” 50%로 10년 새 3%p ↑

개신교 신앙활동 1위·호감도는 저조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개신교인, 신앙과 삶 일치 시켜야"=비종교인이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는 불교(25%), 천주교(18%), 개신교(10%) 순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1% 포인트 증가했고, 불교와 개신교는 각각 12% 포인트, 2% 포인트 떨어졌다.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률은 10년 전 33%에서 46%로 무려 13% 포인트 급증했다.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신앙생활의 타전은 이웃과 학교, 직장 등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교회 밖 세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교회 안팎의 삶에 있어서 함께 분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순위	내용
1	영적 지양 등 교회의 도움을 받기로 생긴 신앙관계로 잘 이해함(72%)
2	영양을 제공하기 위함(42%)
3	복음에 있는 가치관 반영(38%)
4	영적 지양 등 교회의 도움을 받기로 생긴 신앙관계로 잘 이해함(72%)
5	부유(12%)

순위	내용
1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다(72%)
2	성인 스승의 도움을 받는다(44%)
3	기도한다(39%)
4	교인들과 도움을 받는다(32%)

*답변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기총 '이단해제 재심' 새 임원회서 처리 기하성서대문 가입·지도부 음해세력에 강력 대응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류광수·고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 문제를 신임 임원회에서 처리기로 했다. 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서대문)를 회원교단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한기총 음해세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재현 안 류·박 목사의 이단 해제 재심 문제와 관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통과시키고 차기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박 목사의 이단해제에 대한 이의 제기

교단 및 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해 '이들 교단 및 단체의 이의제기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국민일보 1월 27일자 29면). 이의를 제기한 교단 및 단체는 당초 7곳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 교단의 이의 제기 신청이 반려되면서 6곳으로 줄었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단 해제 재심 문제는 한기총 운영세칙(10조 4항)에 따라 총회가 아닌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새롭게 구성되는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훈 대표회장도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임원회에서 적법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임원회는 대표회장과 명예

회장, 경증회장, 공동회장, 부회장 등 회장단과 서기, 회계, 감사 등 교단 안배에 따라 관례대로 80여명 선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한기총 내부에서는 교계 전반의 요청을 감안해 '재검증'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특별 검증위원회 구성 등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기총 분열 사태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탈퇴 상태였던 기하성서대문(총회장 합동근 목사)에 대한 재가입 안건이 실행위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교단 통합을 추진 중인 기하성서도 순복음과 서대문 측은 함께 한기총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한기총은 또 최근 빚어진 한기총 및 지도부를 향한 음해와 유언비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 말 교계 일부 군소 인터넷 매체들은 한기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계정 승인이 늦어지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한기총

정관계정 승인 포기' '한기총 무주공산' 등 악성 루머를 담은 기사를 유포하면서 한기총 지도부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회장은 "당시 음해성 기사를 내서 명예를 손상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2013년 WCC 부산총회 당시 오순절 성경운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하성 교단을 대표해서 설교하고 문서 등으로 인사를 남긴 데 대해 "WCC 신학사상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이 대표회장은 "종교다원·혼합주의와 동성애, 공산주의 등 WCC 내의 잘못된 어떤 신학에도 동의할 적 없으며, 이후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보보수신앙에 입각해 한기총의 정체성을 살리고 복음적 신앙 전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조섭리 반하는 유전자치료 연구 안돼”

교계, 법률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안전성 미검증 큰 위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생윤협·상임공동대표 박재형 교수)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상은 원장)가 국회 차원의 유전자치료 연구요건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전자치료를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넣어 형질을 발현시켜 잘못된 유전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법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

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치료의 연구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나아가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과 같이 질병과 무관하지만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안 개정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유전자치료의 연

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형 상임공동대표는 "유전자 치료는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치료가능 범위를 확대하면 유전자 치료를 받는 사람은 물론 다음세대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기술 발달로 유전자치료를 맞춤형의 기반

“인권위법, 동성애 조장 모든 병폐 근원”

73개 단체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 사회에...' 세미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출산을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성생활이 만연할 것이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한국교회연의회, 홀리라이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73개 단체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국가가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고 있는데다 친(親)동성애 풍조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일선학교 윤리교과서에는 동성애가 정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돼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과 울산, 광명 등은 동성인권조례를 통해 주된 형태로 동성애자를 지원한다. 서울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이재홍 대표는 "헌법 제36조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들고 모성의 기능을

중요시하며 행복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동성애를 방지하면 성적 타락이 심화돼 서구처럼 배우자를 서로 바꾸는 스와핑,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 근친상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의에 나선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내 자식이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동성애가 널리 퍼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자경 나라사랑 바른학부모 실천모임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혼전동거가 늘고 있는데 동성 결혼마저 합법화 된다면 출산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나라사랑 기도모임 대표 김계춘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라며 "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사회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찬반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세미나 등을 통해 인권위법의 문제점을 알린 뒤 9월 국회의원총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총리실 산하에 '성중독 예방치유 위원회' 설치도 제안하기로 했다.

“탈북과정 교회 도움받아 기독교 입교”

감신대 신대원생 안란희씨 '탈북민 기독교 신앙' 논문

2010년 탈북한 김모씨는 중국에 머물 때 공안에게 체포될 뻔했지만 한 중국인 목사가 피신처를 제공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도와준 이유를 묻자 그 목사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큰 감동을 받았고, 이후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감리교신학대 신대원 안란희씨는 최근 발표한 석사논문 '탈북민들의 기독교신앙과 목회사역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 거주 중인 기독교인 탈북자 대부분은 탈북 후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것이 기독교 입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탈북자 최초로 감신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안씨는 탈북자를 위한 목회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기독교인 탈북자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109명(70%)이 중국 체류 중 교회를 접했고, 신변보호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독교에 입교하게 된 동기로는 '국내 정착 지원 등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생긴 인간관계의 정 때문'이라고 답한 이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안씨는 "탈북자들은 탈북 후 느끼는 공포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고립감을 교회가 치유해 줄 수 있다

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답했다.

교회유형으로는 남한 성도와 탈북자가 어우러진 교회에 다니는 이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족종질성을 느낄 수 있고, 남북 문화를 모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명은 탈북자가 없는 교회, 5명은 탈북자로만 이뤄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나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탈북자는 100명이었으며, 70명은 '혼자 기도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씨는 "탈북자들을 단순히 교회에 출석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보듬으며 지속적으로 신앙훈련을 시킴으로써 통일 후 북한선교의 선봉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탈북자 출신 목회자의 조언도 담았다. 최바울(경기도 군포 한민족사랑교회) 목사는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 탈북자를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키울 것"이라며 "먼저 이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 2014년 전국 중·대형교회 11곳 '찬송가' 분석

국내 주요 교회에서 지난해 주일 예배 때 부른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이 애창한 곡은 '성도여 다 함께'(새찬송가 299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새찬송가 645곡 가운데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송가는 299곡(46.4%)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주요 교단 및 지역별 중·대형 교회 11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교회 주보를 통해 지난해 주일예배 때 사용된 찬송가를 분석했다. 조사 대상 교회는 광주동명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제일교회(통합), 대전 새로나교회(합동), 명성교회(통합), 부산 제일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분당한신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사랑의교회(합동), 신촌성결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아현감리교회(기감), 여의도순복음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지구촌교회

◇예배 때 평균 3곡 불러, '경배·찬양곡' 많아=조사 대상 교회들은 지난해 주일 예배 때 총 1729차례 찬송을 했다. 한 교회당 매주 3곡 가량 부른 셈이다. 새찬송가에 수

록된 645곡 가운데 한 번이라도 사용된 곡은 346곡(53.6%)이었다.

가장 많이 불린 곡은 '성도여 다 함께'로 총 72회 사용됐다. 11개 교회를 기준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것이다. 영국 베이트만(1813-1889) 목사가 작사한 이 곡은 1843년 아

동성가집에 처음 실렸으나 '어린이'를 '크리스천'으로 개사하면서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찬송이 됐다. 가스펠자인 에반스(1874-1948)가 스페인 민요곡을 편곡한 곡조가 지금의 찬송가에 실렸다. 교회음악 전문가들은 "곡조가 밝고 힘찬

데다 비교적 부르기 쉽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사 내용이 이 찬송가를 선호하게 만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57회 사용된 '시온성과 같은 교회'(210장)가 뒤를 이었다. 시편 87편 3절을 토대로 한 가사에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현악 4

중주곡의 곡조가 사용된 찬송으로 독일에서는 이 곡에 다른 가사를 붙여 국가로 부르고 있다. 가스펠송으로 1990년에 만들어진 '여기에 모인 우리'(620장)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15장) '전능 왕 오셔서'(10장) 등도 많이 불렸

다. 10차례 이상 사용된 28곡 가운데 '경배·찬양'을 주제로 한 찬송이 12곡(42.9%)으로 가장 많았다. 예배를 시작할 때 주로 부르는 송영·입례송 중에서는 '성부 성자와 성령'(3장)과 '만복의 근원 하나님'(1장)이 각각 61회, 60회씩을 기록했다. 예배를 마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주기독문·635장)이 10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단골 찬송" 탈피해 다양한 찬송가 시도해야=새찬송가 작곡에 참여한 이문승 서울신학대(교회음악과) 교수는 2일 주요 교회들의 찬송가 사용 현황에 대해 "예전만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이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384장)처럼 과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곡을 많이 불렀다"면서 "최근 선호 곡들을 보면 '예배'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특징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익숙한 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찬송가를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 교수는 "구 찬송가(통일찬송가)에 비해 새찬송가에 새로 수록된 찬송가가 120곡이 넘는다"면서 "예배 찬송의 보급과 찬송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회마다 새로운 곡을 배우는데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교회음악 전문가인 김철륜 안양대 부총장은 "찬송 전문가를 양성하고 예배 찬송을 배우는데 신학교와 교회 성가대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리더십 (12)

느헤미야의 리더십(10): 최고 성취가의 비밀 (느헤미야 6:1-19)

번역 및 요약: 최운동 목사 (감사한인교회)



오늘은 최고의 일을 이루는 최고의 성취가들의 비밀을 알아보자. 성경은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열물월 이십오일에 끝났다"(6:15)고 말한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의 비밀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공사를 마칠 때까지 즐기며 했다. 성벽재건 공사에는 반대자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계침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분열과 낙담과 불화, 조소와 조롱, 공포감 조성 등을 시도했다. 그것들이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전갈을 보내어 들관으로 나와 같이 말하자고 유혹을 한다. 사탄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성취하는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의 것을 해야 한다.

을 알고 있다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일의 동기에 도전하고 있었다. 누구든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은 목표를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중상모략을 당하게 된다. 실패는 성공을 싫어한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누가 가장 거짓모함을 받았는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하여 거짓 모략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리더십 법칙: 리더가 되려면 언제나 리더를 혼란케 만드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혈투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3.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라

리더로서 혼란과 중상비방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1. 강력한 목표

이것은 리더십의 제일 첫 번째 요소이다. 목적, 비전, 꿈, 목표가 필요하다. 그것이 당신을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들이 공격할 때 느헤미야는 "나는 큰 공사를 실행하고 있소"라고 말한다. 그는 오로지 공사에만 집중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강력한 목표가 있는가? 어떤 목표가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가? 당신은 강력한 삶의 목표를 가지기 전까지는 당신은 단지 존재할 뿐이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과 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목표가 있

다. 비방 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다. 일을 사람들 앞에 들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려라. 느헤미야는 방어적이 되거나 사람들의 거짓 고발에 복수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잘못된 리더로 비난 비방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라. 당신은 긴 방어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주님께 아뢰라.

4. 용기있는 지속성

성공을 이루는 열쇠중의 하나는 그것에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저 계속하여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내가 새들백에서 했던 모

목표에 눈을 맞추고 어떤 비방과 위협에도 계속 일해 명확한 관점의 목표 세우고 계속 기도하며 용기 내야

1. 혼란함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

반대자들은 느헤미야에게 평화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런 제안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고 단호히 잘라 말한다. 그는 성벽공사가 끝날 때까지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리더십 법칙: 핵심은 중요한 일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방해에도 휘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목표에 눈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네 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왔다. 그는 매번 "안된다"고 대답을 했다.

2. 비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

반대자들은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불명예롭게 했다(5절). 그들은 느헤미야를 중상비방 했다. "너희들은 단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것

최고의 성취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라. 반대자들은 느헤미야를 혼란케 하고 그 다음은 그를 비방 중상하다가 이제 그는 그를 협박하여 두렵게 만들려고 한다. 10절,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느헤미야는 그 말에 대해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한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을 했다.

모든 공격들의 공통된 점: 이것 모두가 리더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반대자들의 공격은 백성들을 낙담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제 반대자들은 리더를 향하여 직접 공격하고 있다. 풋볼게임에서, 수비진의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는 쿼터백을 공격하는 것이다. 만일 쿼터백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당신은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역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리더십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런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당신의 리더십을 결정하게 된다.

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힘이 생긴다.

리더십 법칙: 위대한 삶은 위대한 목표에 헌신할 때 이루어진다.

2.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판단력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매번 함정이 다가올 때 그는 그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는 지각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매우 날카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함정이 있을 것을 예기하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당신이 리더가 되려면, 당신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혜이다.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약1:5, "만일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며 지각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다. 당신은 다가오는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3. 계속적인 기도

느헤미야는 기도예 중독된 사람이다. 모든 일에 대해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기도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

든 설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신자를 위해, 하나는 신자를 위해 하는 설교다. 불신자를 위해 한 설교주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 당신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이고, 신자를 위해 했던 설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였다. 우리 모두는 삶의 전쟁에서 약해지고 지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용기를 내 지속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용기있는 사람이다. 11절에서,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이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두려움에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오"라고 말한다.

위의 요소들이 바로 최고의 성취가들이 가진 특징들이다. 느헤미야는 이런 리더십의 특징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8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52일 만에 성취했다. 우리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선교지 소식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신학교 '여성 리더십' 세미나 제 7회 14명 졸업자 배출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신학교에서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이 제 7회로 14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캄보디아의 여성 리더로서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9개 지역(Province) 64개 교회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20대부터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여성 세미나는 원근 각지에서 모여든 40대와 50대 주류로 구성됐다. 어떤 참석자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려 참석하기도 했는데, "배움의 눈들은 초롱초롱했다".



제7회 졸업식에서 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선교보고

캄보디아에 머무릅니다. 벌써 7년째 이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일월 날씨는 건달만 합니다. 그래도 맑은 흐르지만 사어나 짐통은 아니지요. 아침저녁으로 산들 바람도 만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가진 이 땅 사람들을 대할 때 넓은 주님의 사랑과 역사를 봅니다.

그동안 캄보디아국제신학교(ITCS)에서만 일하다가 남성 목사님들 연수원과 여성 리더십 세미나도 함께 합니다. 여성 리더십에서는 부족한 저에게 목적인 직책까지 맡기어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100여명의 여성들이 캄보디아 곳곳 지역에서 모입니다. 말씀에 목 말라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선하신 그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합니다.

제 7회로 14명이 여성 세미나의 첫 졸업 수료증을 받습니다. 신학교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이 커다란 열매들이지요. 연수원 졸업식과 여성 리더십 졸업식후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은 세상 것들과는 멀리하게 되고 말씀과 묵상, 강의 준비에 전념할 수 있지요.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캄보디아 여성리더십세미나 부원장 오금옥 선교사
이메일: grace8700@gmail.com



여성 세미나 강사진들. 왼쪽부터 티모디 쉼켄 목사, 김현 목사, 김크리스 선교사, 오금옥 선교사, 여운세 목사, 전화영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5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뉴욕장소, 5월 15(금)~18(월) 브라질장소
- 2) 고시 장소: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고시부서에게 문의바람)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한문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창세기 6:1-4
 - (2) 신약 주해 - 사도행전 9:10-19
 -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입장에서교단의필요성에대하여논하시오
 - (4) 설교 본문 - 이사야 40:26-31
 - ◎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필기고사 당일엔 본인인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설기고사를 지름
-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5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고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5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9회 총회기간(5월 19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신학생고시부서(김영기목사에게시함)기간(11월-13일 2015년뉴욕장소, 15-18일 2015년브라질장소) 중사용할속도를예약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Rev. Young Kee Kim) / Email: youngkey48@gmail.com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443)520-52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718)309-3376, kilhee2003@yahoo.com
- 2)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고시부 회계: 허영준목사(718)637-1470, jameshr63@hotmail.com



스페인 말라가

평강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한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있던 곳을 떠나온 것, 아무 아는 이 없이 말라가에 정착하게 하신 것,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들 속에 스며들게 하신 것,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척박한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모두입니다.

지난 12월에 들어오면서 말라가 중심에는 정말 멋진 조명들이 길을 댔었습니다. 그길 가득 사람들은 식구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정착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곳 스페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도 불과 5-6년 사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식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서로에게 축복과 부락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 선교사를 선두로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순서를 기다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생각했던 그 수많은 말들은 떠나고 아이들에게 잘 적응해줘서, 스페인 학교에 가는 것이 힘들어 못가겠다는 말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친

구들과 잘 지내려 많은 말을 하진 못하지만 이름을 외워 그들의 이름을 하면 더 불러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던 예향이와 이안이, 케빈이에게 고맙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새해를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과 관심이 저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이민자 무슬림들과 좀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어문화 지역이 그들이 지내는 곳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종종 그분들을 만나면 가벼운 인사와 그들의 고향에 대해 묻는 수준입니다. 이곳은 유럽의 끝인 동시에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많은 무슬림들이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지이기에 호텔 서비스업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일하고 있으며 과일가게와 케밥 식당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교 길과 학교 길에 학부형으로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슬림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보통 머리에 히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명령으로 가슴이 찡뚱합니다.

이곳을 사역지로 결정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2절이었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But Shammah took his stand in the middle of the field. He defended it and struck the Philistines down, and the LORD brought about a great victory.”

저희는 ‘그 밭 가운데 서서(stand in the middle of the field)’라는 구절에서 많은 용기와 사역의 방향

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무슬림들이 무방비의 스페인으로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에 서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기도가 없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맞서는(defended it and struck)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카톨릭 인구보다 무슬림의 수가 더 많아진지 오래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습니다. 1년간 언어훈련을 위한 학비와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각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걸리는 비자 연장이 순조롭게 잘되어 주님이 새롭게 여시는 이곳에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1년의 기간 동안 사역정착지를 잘 찾을 수 있게 하소서.
-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밀려오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 유럽의 재복음화를 통해 참된



전체 유럽인의 2%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은 기독교인이 1%가 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맞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맞서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곳은 새로운 방법의 개척지입니다. 유럽이라는 지역적인 환경과 무슬림이라는 마지막 선교의 장벽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역할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1년을 이곳에 있기 위한 비자를 연장하는 중에 있

복음을 수호하며 주님의 말씀의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게 하소서.

4. 비자연장을 위한 필요들이 잘 채워지며, 1년 동안 언어훈련과정 중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5. 저희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는 빛과 같은 가정이 되어 아들로 뒹여있는 이곳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유럽의 끝 스페인 말라가에서 남사현, 이현진(예향, 이안, 케빈) 선교사 가정
malagamission@gmail.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베드로가 마가에게 직접적인 준 것과 같이, 누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성경은 누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의사출신으로 바울의 선교에 동역하였는데, 매우 섬세한 통찰력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신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였다. 각 사건마다 예수께서 직접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누가는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와 같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결과로 생겨난 회심과 이후 다른 사도들과의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서술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레니우스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자신이 들은 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증거한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아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자신에게 유대 기독교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메시아를 전하는 사명을 주어진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의식이 발동하였는지,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틀림없는 사실로 알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외에 여러 방법을 통하여 예수

를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찾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누가복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하게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자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자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눅1:1-4).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투철한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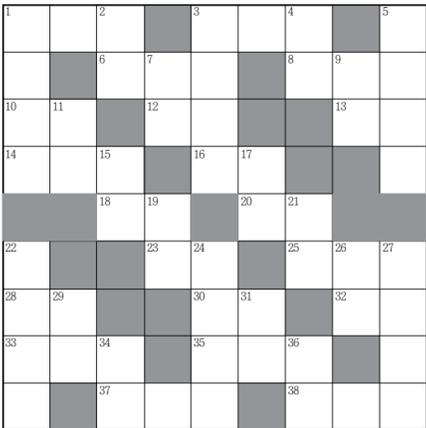
2) 성경이 보인다 - 요한복음 20:30-31

복음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역사서이다. 역사적인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갖게 된다. 복음서는 그 답을 제공한다. 이미 영접한 자들에게 깊은 신앙심을 심어주며,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한다. 이것이 사도였던 마태와 요한, 그리고 사도의 제자였던 마가와 누가가 공유했던 사명이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하려는 목적에 의하여 엄선된 역사적 자료집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십자말 • Cross Word (6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요한의 아들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요1:44).
3. 로마에 있는 성도(롬16:15).
6. 시비곡직을 가려서 결정하는 법(민27:21).
8. 각각의 족속(창3:14).
10. 헬라인으로 바울의 전도 시에도 동행하였다(고후7:13).
12. 의심하여 물음(단5:12).
13. 이익을 위하여 사서 파는 일(느13:20).
14. 아버지하의 할아버지(대상5:14).
16. 지어서 만듦(창30:25).
18. 삶이 문드러진 것(레13:10).
20. 반가운 소식. 굿뉴스(갈1:8).
23. 막내아들(수6:26).
25.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돌(수5:2).
28. 옛날에 거세당한 자로서 숙위의 일을 맡아 보던 관원. 환관(에1:12).
30. 달거나 지나간 자리(요20:25).
32. 즐기 가지가 목질 화된 여러해살이 식물. 목본(木本).
33. 늙음하고 씩씩한 남자(민13:33).
35. 손끝에 달려 있는 다섯 개의 짧은 가락(요8:8).
37. 손가락이 오그라져 퍼지 못하는 손.
38. 프랑스의 곤충 연구가 파브르가 쓴 불후의 명저의 이름(상식).

<세로 푸는 열쇠>

1. 사삭의 아들(대상8:24).
2.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광야에서 숭배하던 우상(행7:43).
3. 율법에 대하여 다루게 된 사건(행23:29).
4. 아말렉 왕. 사무엘이 찢어 죽임(삼상15:33).
5.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건지내는 일.
7. 의안(議案)의 가부를 결정함(요9:22).
9. 한 거래불이의 우두머리(창36:15).
11.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레26:22).
15. 포로에서 귀환 후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자숙한 것을 성문 체약하여 날인한 족장중의 한사람(느10:27).
17. 조하(朝賀) 때 입던 예복(에8:15).
19. 계수나무의 두꺼운 겹질(창30:23).
21. 음란한 여인(레20:10).
22. 대궐 안에서의 큰 벼슬 이름(와상4:6).
24. 자손의 여러 대(잠13:22).
26. 이삭이 그밭에서 판 우물의 이름(창26:21).
27. 돌을 수북하게 쌓은 더미(왕하19:25).
29. 물건들을 사고파는 곳(사23:3).
31. 나라(사34:12).
34. 경조사 때 물건이나 돈을 보냄(행11:29).
36. 단의 한 성읍(수19:46).

십자말 정답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5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5.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1(Mon.)-13(Wed.), 2015 (New York); May 15(Fri.)-18(Mon.), 2015 (Brazil Iguazu)
- 2) Place: New York; Adria Hotel & Conference Center
221-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Brazil Iguazu; Inquire with the Clerk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6:1-4
 - (2) NT Exegesis Text - Acts 9:10-19
 - (3) Thesis Topic - Discuss the necessity of denominatio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Isaiah 40:26-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5.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5.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the candidate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9-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appropriate examination dates (New York: May 11-13, 2015 or Brazil: May 15-18, 2015) through Rev. Young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oung Kee Kim / Address: 10378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Cell : 443-520-5242 E-mail : youngkey48@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Kil Ho Lee (718)309-3376 (kilhlee2003@yahoo.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oung Kee Kim (443)520-5242 (youngkey48@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고시부 부장: 이길호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기목사

인/터/뷰

라홍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중국어판 출판

중국정부가 번역 인쇄 판매까지...하나님의 역사하심

라홍채 목사(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의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 8권이 영어에 이어 중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거절을 당하고 출판사를 찾고 있었던 나 목사는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소개하자, 이 장로가 담당 출판자라는 제의에 당황해서 원고를 갖고 호텔로 돌아왔다.

획은 아니잖나?’ 얼마나 황당했던지...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쓰셨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서적이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나도 왜 그렇게 써야하는지 몰랐지만 중국어판이 출판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너의 구원계획이지 나의 구원계획은 아니잖나?” 하나님의 뜻대로 알도록 신구약 성경대로 저술

나눔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선정하시고 직접 그 두 분의 문화공보부장관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이 책을 들고 중국으로 가면서 한국에서 번역하면 사투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중국어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콤팩트출판사를 찾아갔고 그 바쁜 이 장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맞이했다고.

전체를 알고 있을 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 소를 먹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빨리 알고 먹도록 썼습니다.

라 목사는 지금 생각해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 듯 숨을 내쉰다. “어찌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경이 아닌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책이 지난해 10월 홍콩에 있는 출판사에서 인쇄가 돼서 현재 중국 본토에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2015년부터 중국어회중 예배를 시작한 킨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유지에 첸(Yu Jie Chen) 전도사에게 소개됐다.

라 목사는 하나님의구원계획(GPS)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또 공과 공부도 인쇄 중에 있다.

이 중국어 책은 미자립교회에 3500부가 분배됐다고 한다. 중국에서 책을 출판하려면 문화공보부에서 ISBN 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번호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출판을 준비했던 나 목사의 간증도 색다르다. “2012년 늦가을 1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본서를 책상 모서리에 놓아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편 본지는 라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를 위탁 판매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는 2014년 제 21회 베이징국제도서전에 소강석 목사의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등 한국 책 4권과 함께 전시된 바 있다.

“2012년 늦가을 1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본서를 책상 모서리에 놓아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국어판 8권 총 100달러: “하나님의 구원계획 1(구약)” “하나님의 구원계획 2(신약)” “칠십이레” “지금 이 시대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다니엘” “요한계시록(상)” “요한계시록(하)” △영어판 3권 총 40달러 △중국어판 4권 총 50달러 △CD 4권씩 20달러(www.chpress.net 참고, 718-886-4400, 4424).

라 목사와 이형규 장로와의 만남도 우연은 입은 기적에 가깝다. 라 목사는 본지가 한국에서 개최했던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에서 우연히 이형규 장로를 만났다.

저자 연락처: (917)968-1024 (유원정 기자)

킨즈장로교회, 중국회중 예배 시작

2015년 1월부터...40명 전도

킨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21세기 선교 목회를 향한 출발을 시작했다. 1월 첫 주일부터 시작된 중국어 예배는 한 달이 채 못돼 40여명의 중국인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킨즈장로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예배준비팀들까지 합해 매주 1백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중국어 예배에서 설교하는 첸 전도사

민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는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킨즈장로교회는 수년 전부터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왔다. 현재 100여 명의 중국동포들이 한인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국 목사는 “후러싱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 65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킨즈장로교회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중국어예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킨즈장로교회에 중국인 예배가 생긴 것은 타민족 선교를 위한 미래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국에 나가 하는 복음전파만이 선교가 아니라 뉴욕과 같은 다민족 지역에서 타

가정사역 칼럼

(7면에서 계속)

그래서 별다른 일 한번 제대로 못한 채 허송세월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또한 중년에 이르면 자신에 대한 이해의 수단이 다변화된다. 즉, 젊은 시절에는 건강하던 부모가 노인이 된 모습, 지금까지 어린 애라고만 여겨졌던 자녀가 장성한 성인이 된 모습, 그리고 중년의 특징이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경향이 증가한다. 또한 그동안 왕성하게 분출되던 성 호르몬(여성-에스트로겐/ 남성-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남성은 여성호르몬 비율이, 여성은 남성호르몬 비율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므로 서로 상대적인 성격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아울러 중년에 이르면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내향적 경향이 증가하고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젊었을 때 외부의 영향을 받고 설정하였던 인생의 목표나 의미에 대해 많은 사고를 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세계를 보람 있게 하고 자기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시기에 남성들의 외도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감성화 경향’과 관계가 깊다. 흔히 중년남성의 외도를 들끓는 성욕을 못 이겨 젊은 여성이나 찾는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눈길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공감하며 애기를 들어줄 상대를 갈구하는 경우가 많다.

3. 중년 초기 성역할 지각과 행동의 변화 우리 중 대부분은 출생할 때부터 시작된 사회화의 영향으로 청년기까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도록 교육받는다.

‘남성의전환’의 한 관계자는 “중년의 외도가 가정에 불만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부인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부부 간에 대화가 끊어질 때 외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새 연인이 생겨도 가정파탄은 원치 않는 것이 대다수 남성의 바람이다”고 말한다.

이메일: familylu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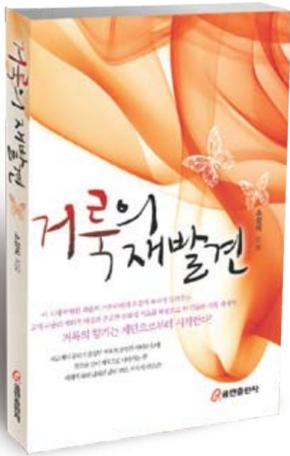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단거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